

第 21 回
全國民俗芸術競演大會

— 出 演 作 —

民 俗 : 康翎탈춤

民 俗 : 大同굿

民 謠 : 배다라기



日 時 : 1980. 10. 29~31.
場 所 : 濟州市公設運動場

黃 海 道



民俗競演大會에 參加하면서

黃海道知事 鄭 奉 重

福되고 義로운 새 時代를 指向하는 歷史의 轉機를 맞이하여 民主憲政 確定과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加一層에 前進과 榮光이 같이 하기를 祈祝합니다.

今般 濟州에서 舉行되는 第21回 民俗競演大會에 즈음하여 失鄉 黃海道民의 民俗으로서 아래와 같이 出演하여 잊혀져가는 鄉土藝術 暢達 繼承에 寄與코저 하오니 參觀 激勵 있으시기를 敬望하옵니다.

아 래

康翎탈춤 競演

1980. 10. 31. 10 : 55 ~ 11 : 35 (40분간)

大同굿 競演 (初出演作)

1980. 10. 30. 12 : 45 ~ 13 : 25 (40분간)

배다라기 競演 (初出演作)

1980. 10. 30. 11 : 00 ~ 11 : 10 (10분간)

康翎 탈춤 解説

강령탈춤은 오랜전부터 황해도 일대에서 돌아오던 탈춤의 하나로 해서탈춤의 대표격이 되는 탈춤이다. 강령탈춤은 그 대사와 춤, 가면, 의상 그리고 장단 등에 있어 해서지방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외적 특징으로 보자면 양반 과장의 사실적 인물탈과 노승, 취발이 마부, 말뚝이 등과 같이 비사실적 괴면형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외상에서도 목중, 양반, 영감, 노승의 칠배장삼과 말뚝이, 마부, 취발이 등과 같이 붉은 더거리에 한삼이 달려있어 또한 조화를



朴 東 信

잘 이루고 있다. 춤은 느린 사위로 장삼소매를 고개너머로 휘두르는 장삼춤이 주가 되나 말뚝이 등과 같이 더거리를 입고 뛰는데서는 발이코가 닿도록 뛰야 되는 것도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강령탈춤의 특징을 잘 살펴 볼 수가 있어 하겠다. 강령탈춤의 주제는 1) 잡귀를 쫓는 의식무 2) 과거승에 대한 조롱 3) 양반들에 대한 모독 4) 일부 대처첩의 삼각관계와 시민생활의 모습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놀이 순서는 길놀이가 끝나면 제 1 과장 사자춤부터 시작하여 제 7 과장 노승춤의 취발이 놀이로 끝나는데 강령탈춤의 길놀이는 소무가 말 또는 소를 타기도 하여 길놀이가 매우 화려하였다고 한다. 이 놀이는 이북지방의 큰 명절의 하나인 단오날 주로 연회를 해 왔으며 단오가 지난 후 10일만은 민중에 뒷풀이라고 하여 한번 더 놀고는 모든 탈을 태워버렸다 한다. 다른 가면극에 비해 강령탈춤의 오락적 요소보다 신앙적 내지 종교적 의의가 우세하다.

大同굿의 解説



金 錦 花

特性: 黄해道の 굿도 他地方과 마찬가지로 「철물이굿」「식상돌음굿」「대탁굿」「진오귀굿」等 아주 多様하나 大同굿은 오랜 옛부터 黄해道 主로 瓮津地方 漁村에서 3年마다 한번씩 洞内堂 옆에다 “굿칭”을 짓고 洞内の 安過泰平을 豊漁의 滿船을 希求하는 온 洞内가 祝祭의 雰圍氣 속에서 5日間이나 걸려하는 傳統的 巫儀式行事이다

大同굿은 24거리로 되어 있으며 거리마다 巫服이 바뀌고 또한 그 차림이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巫樂의 한배도 다양하며 3박, 4박, 7박을 많이 쓰고 막장단도 많이 쓰인다. 긴장단(거상) 산유장단 등 黄해道 特有의 名稱도 많다. 새납, 피리, 해금, 대금, 북, 장고, 징 때로는 제금(상쇠)도 쓰인다.

巫儀式 順序

- | | | | |
|---------------------|-----------|-------------|-----------|
| 1. 안반고사 | 6. 사또놀이 | 13. 성수거리굿 | 20. 작두거리굿 |
| 2. 신청울림 | 7. 초부장굿 | 14. 사냥굿 | 21. 맹인영감굿 |
| 3. 상산맞이굿 | 8. 초감흠굿 | 15. 생타살 군웅굿 | 22. 마당굿 |
| 4. 입장군영
영령하산굿 | 9. 초영령굿 | 16. 익은 타살굿 | 23. 강변굿 |
| 5. 새경놀이
(문잡아 들음) | 10. 복잔 내림 | 17. 대감놀이굿 | 24. 영산물림굿 |
| | 11. 칠성제석굿 | 18. 서낭굿 | |
| | 12. 말명도산굿 | 19. 조상굿 | |

大同굿은 前述한 바와 같이 5日間이나 계속되는 巫儀式行事로 되어 있습니다. 時間制限으로 24거리를 다 못함을 안타깝게 生覺합니다. 오늘 公演順序의 줄거리는 24거리中 5번째인 “새경놀이”中에서 一部를 公演한다. “새경놀이”를 要約하면 중소염, 하소염, 별상, 사자업, 영상 할아범, 영상 할멈, 무녀, 제비들이 출연하며 첫번째로 초가집에 들려 준비된 마당에서 굿관을 벌인다음 洞内를 집집마다 돌면서 굿관을 벌이는 場面부터 始作하여 堂山집에 먼저 들어가 앉는 지관들.

술문 앞에서 술문으로 들어갈려는 무녀와 막둥이가 신강이를 벌이다가 무녀 술문으로 들어간다(문잡아 들음)

지관 등 洞内사람들 일어서서 무녀들을 맞이한다. 무녀들 洞内の 安過泰平和 豊漁에 滿船을 祈願하는 굿관이 벌어진다, 사자업, 별상 등 허레기 놓고 맑은 물과 뜬물中에서 사자업 맑은물에 풍덩 빠진다. 지관, 소염 이하 洞内 사람들이 일어나서 吉兆라 運數大通이다 외치면서 노래 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는 5번째의 “새경놀이”의 한 과장이다.

배따라기 解説



池 寬 龍

배따라기는 船人들의 職業을 따라 海中에서 고기를 잡기 爲해 모진 風浪 모진 波渡와 싸우며 体險한 逸話가 事實 그대로 엮어진 土俗民謠로서 船人 生活를 怨望하며 다시는 船人이 안되겠다고 盟誓하는 民謠이며 事實 船人 들은 배따라기를 잘 부르지 않음.

잡은 배따라기 解説

잡은 배따라기는 黃海道와 平安道 地方에서 많이 불리우는 土俗民謠이며 特히 黃海道 甕津地 方에서 新正初부터 出航準備를 서둘러 陰歷 正月 15日부터 出航이 始作되며 마을 사람들이 모 여 祭物을 많이 차려놓고 豐漁를 祈願하며 장고, 북, 갱가리, 징, 호적을 불며 堂에 올라 堂이 란 林慶業 將軍의 化상을 모신 곳을 말한 堂에서(배치기) 民謠와 잡은 배따라기도 捧竹을 받았 다 하여 船人들이 좋아서 접이를 울리며 歸家하면 還迎하며 잡은 배따라기와 배치기라는 民謠 를 부르며 춤추고 船人들의 勇氣를 돋아주는 民謠임.

出 演 者 名 單

강 령 탈 춤

- | | | | |
|------------|------------|------------|------------|
| (1) 박 동 신 | (2) 지 관 용 | (3) 김 실 자 | (4) 김 정 순 |
| (5) 이 정 석 | (6) 강 대 승 | (7) 양 종 승 | (8) 차 선 숙 |
| (9) 한 상 근 | (10) 김 영 석 | (11) 이 중 호 | (12) 우 중 숙 |
| (13) 박 희 화 | (14) 이 성 호 | (15) 김 정 규 | (16) 이 인 영 |
| (17) 이 정 미 | (18) 이 화 순 | (19) 변 중 원 | (20) 양 소 운 |
| (21) 차 부 회 | | | |

大 同 窟

- | | | | |
|------------|------------|------------|------------|
| (1) 장 용 수 | (2) 지 관 용 | (3) 안 승 삼 | (4) 김 경 북 |
| (5) 김 순 식 | (6) 최 수 경 | (7) 양 병 열 | (8) 최 음 전 |
| (9) 김 학 실 | (10) 김 금 화 | (11) 윤 중 화 | (12) 신 소 저 |
| (13) 이 옥 자 | (14) 조 순 섭 | (15) 민 남 순 | (16) 윤 순 자 |
| (17) 윤 재 희 | (18) 김 정 애 | (19) 김 금 전 | (20) 김 현 숙 |
- (外 10名)

배 다 라 기

- | | | | |
|-----------|-----------|-----------|-----------|
| (1) 장 용 수 | (2) 김 순 식 | (3) 김 경 북 | (4) 김 학 실 |
| (5) 민 남 순 | (6) 윤 순 자 | (7) 윤 재 희 | (8) 김 병 문 |
| (9) 공 재 섭 | | | |

강 령 탈춤 출연자 명단

길 놀이 : 출연자 전원

제 1 과장 : 사 자 춤
사 자 : 김 영식 이 인영
마 부 : 이 성호 김 정규
원 송 이 : 김 정순

제 2 과장 : 말 뚝 이 춤
말 뚝 이 : 한 상근 이 종호

제 3 과장 : 목 중 춤
목 중 1 : 양 종승

제 4 과장 : 상 좌 춤
상 좌 : 차 선숙 우 정숙

제 6 과장 : 영감·할미 춤
영 감 : 이 정석
할 미 : 강 대승
용산 삼계집 : 김 정순

악 사 : 피 리 : 박 동신 지 관용
장 구 : 김 실자
상 쇠 : 차 선숙
복 : 박 희화